

# 어메니티 증진과 정서함양을 위한 화훼작물 재배의 확산 방안

임 상 봉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책임연구원

## Diffusion Measures of Growing Flower Crops to Cultivate Amenities and Emotions

Sang Bong Im

Researcher, Rural Research Institute, KARICO

### Summary

Diffusion of non-professional flower growing in Korea still lags behind. The objectives of the study are to establish a theoretical model to explain the diffusion of social floriculture, to identify som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growing flower crops to cultivate amenities and emotions, and to suggest remedial measures for fostering it. Theoretical model adopted in this study consists of such variables as education, social movement, policies, diffusion of social flower growing, amenities, and emotional cultivation. For identifying the diffusion characteristics of flower growing, projects implemented by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schools,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organizations were analyzed.

In order to stimulate the diffusion of social flower growing and to increase its effects, there needs to strengthen education of stakeholders, establishment of partnership among schools, non-governmental and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al supports including manpower and finances. Linking flower growing projects to community festival and tourism development programs can foster institutionalization of community flower growing. Furthermore, the introduction of wild, symbolic and traditional flowers and trees will help to specialize and improve community landscapes.

**Key Words : Floriculture Education, Agricultural Education, Sociohorticulture, Adult Education**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꽃과 관상식물을 포함한 화훼류는 주위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환경을 쾌적하게 하며, 정서적으로 풍요로움과 만족감을 주고 심리치료 효과를 내는 등 인간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준

다(이경순 외 2인, 1998; 배홍규·김진수, 1996; 손기철 외 6인, 2002). 선진국의 예를 보면, 이러한 꽃의 가치가 소비에 반영되어 대체로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꽃의 소비도 증가하여 화훼산업이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영석, 1991).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도 많은 경우에 꽃이 특정한 행사 위주로 소비되고 일반 가정용이나 일상생활용으로의 소비가 매우 적어, 여

전히 일상적인 소비재가 아닌 특수한 소비재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이다(박현태·김연중, 1998).

꽃이 인간에게 주는 유익이 많다면, 이에 대한 소비가 특별한 행사나 이벤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꽃과 가까이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남녀노소 구분없이 모든 사람이 꽃이 주는 유익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에서는 물론 학교나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곳에서 꽃을 심고 가꾸며 이를 체계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가정이나 학교, 지역사회에 꽃 가꾸기가 효과적으로 확산되며, 이것이 지속될 수 있을까? 여기에는 꽃 가꾸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에 관련된 인지적인 요소, 꽃 가꾸기의 실천을 위한 조직적, 사회운동적인 노력 및 민·관의 협력, 인센티브의 부여, 예산 지원 등과 관련된 제도적 뒷받침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Rogers, 1984; Dickerson, 2001; Kramer, 2000). 이에 비추어 볼 때, 어메니티 증진과 정서함양 차원에서 꽃 가꾸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인지적인 측면의 강화를 위한 교육적인 노력에서부터 사회실천, 사회운동적인 측면의 노력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다른 부분의 노력이 있더라도 제도적인 지원을 얻지 못하면 꽃 가꾸기의 지속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와 같은 논거로서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어메니티 증진과 정서함양을 위한 꽃 가꾸기는 비용지불자와 수익자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누구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익을 향유하려 하는 무임승차 원리가 작용하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메니티 자원의 예에서 밝혀진 것처럼(OECD, 1999a), 외부효과로 인하여 민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정부·시민단체 등 공공부문이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입과 프로그램의 실천 과정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로 학교나 지역사회에 꽃 가꾸기를 확산시키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민단체와 학교,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한 「푸른교정가꾸기사업」, 「푸른 학교 가꾸기 사업」,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 학교 조성사업」, 천안시가 추진한 「한국의 꽃 가꾸기 운동」,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꽃 관련 축제, 행정자치부의 「국토공원화사업」 등이 그 예다. 이와 같이 다양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메니티의 증진과 정서 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꽃 가꾸기의 확산을 위하여 어떠한 방안이 필요한지를 이론적인 측면과 실제적인 측면을 비교·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지역사회의 어메니티를 증진시키고, 국민들의 정서를 순화시키기 위하여 일상화된 꽃 가꾸기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세부적으로는 꽃 가꾸기의 확산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틀을 설정하고,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정부 및 민간단체 등에 의한 꽃 가꾸기 확산 노력의 실태와 사례를 분석한 후, 꽃 가꾸기의 확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3. 연구의 방법

이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채택한 방법은 문헌연구법이다. 연구내용과 관련된 이론과 실제적인 부분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나 활동들에 대한 각종 연구 문헌과 정책자료 및 인터넷 자료를 이용하였다.

## 4. 연구의 제한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화훼산업은 이 연구의 주 관심대상이 아니다. 일상화된 생활화훼의 확산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관심의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정이나 학교, 지역사회 등에 의해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경관개선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생활화된 화훼재배에 연구의 범위를 한정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설정한 이론적 모델을 토대로 어메니티의 증진과 정서함양을 위한 화훼작물 재배 확산 현황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꽃이 어메니티의 증진과 정서함양에 미치는 영향은 선행 연구 결과에 의존하며, 여기에서 별도의 검증은 시도하지는 않는다.

## II. 화훼작물 재배의 확산에 관한 이론적 모델

### 1. 화훼작물 재배의 유형과 의의

화훼작물의 재배 형태는 그 목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화훼작물의 재배 목적은 크게 소득창출을 위한 경우와 취미활동의 일종으로서 여가선용을 위한 경우, 그리고 어메니티 증진 측면에서 조경을 위한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밖에도 화초는 심리치료나 정서순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손기철 외 6인, 2002). 이러한 화초 가꾸기의 유형을 재배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여기에서 보면 꽃 가꾸기의 유형은 그 목적에 따라 크게 ①사업형, ②취미형, ③공익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업형은 영리활동의 영역에 속하며 생산의 효율성과 수익성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반면에, 취미형과 공익형은 비영리 활동의 영역으로서 쾌적한 환경조성 효과와 정서순화적 가치가 중요시된다.

화훼는 의식주의 기본적인 생존욕구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 더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추구하는, 물질적 풍요에 대한 욕구보다는 정신적 풍요에 대한 욕구가 큰 나라일수록 발달해 있는 농업분야이다(이영석, 1991).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꽃에 대한 소비가 적을 뿐만 아니라, 소비구조가 경조사 등 행사용 위주로 되어 있고, 일반 가정용 소비는 미미한 실정이다(박현태·김연중, 1998). 더욱이 공익적인 측면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아름다움에 대한 심미적 만족과 즐거움을 주고 정서를 순화시키기 위해 꽃을 심고 가꾸는 것을 확산시키고 지속하려는 노력은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표 1> 재배목적에 따른 꽃 가꾸기의 유형과 특징

구 분	목 적	특 징
사 업 형	소득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적 영리활동의 영역에 속함</li> <li>- 소비자의 시장 수요에 따라 재배 품목이 민감하게 영향을 받음</li> <li>-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비를 들여 고품질의 화초를 많이 생산하는 데 주안점을 둠</li> </ul>
취 미 형	여가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적 비영리 활동의 영역에 속함</li> <li>- 가정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가족의 정서함양에 기여함</li> <li>- 결과 못지않게 재배과정의 경험이 중시됨</li> </ul>
공 익 형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경관과 심미적 가치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 비영리 활동의 영역에 속함</li> <li>- 지역사회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 조성과 주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함</li> <li>- 조경효과 못지않게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정서순화적 가치가 중요시 됨</li> </ul>

생각된다.

그런데 서구와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사회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화훼를 비롯한 원예를 생산 자체에 강조를 둔 데에서 나아가 새롭게 정의하고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손기철 외 6인, 2002: 16). 이는 과학기술과 경제의 발달과 함께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인간과 식물과 사회와 문화를 재해석할 필요성이 증가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원예가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원예와 인간 사이의 상호관계는 지역과 문화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설정되며, 인간은 원예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Hicks, 2003)에 대한 탐구활동이 화훼교육(floriculture education), 사회원예(sociohorticulture), 도시원예(urban horticulture), 원예치료(horticultural therapy)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손기철 외 6인, 2002: 16-21).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여, 화훼작물의 재배를 통해 상업적인 소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여가를 선용하고, 지역사회의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정서를 순화시키는 데 기여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연과 인간·사회·문화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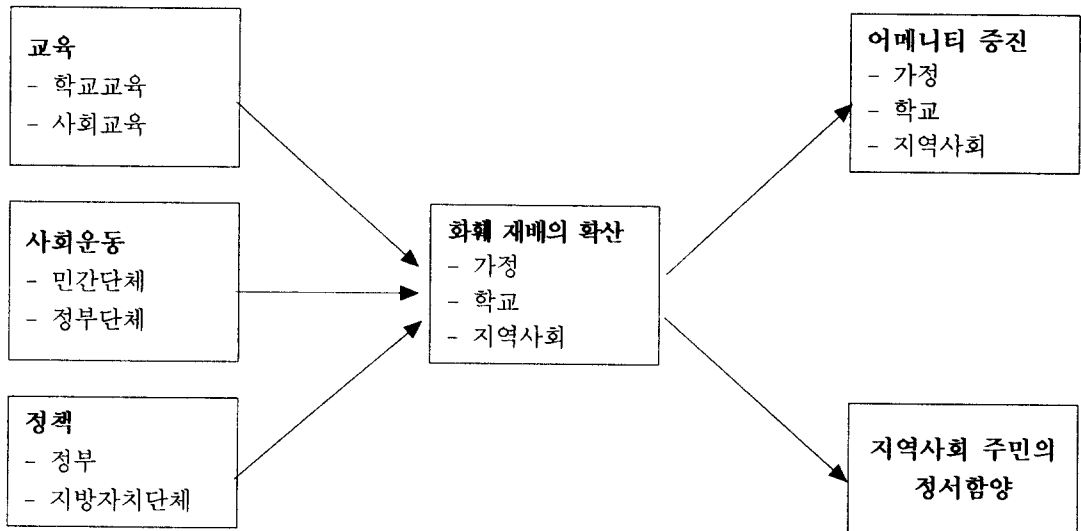
재정립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 2. 화훼작물 재배의 확산에 관한 이론적 모델

화훼작물 재배의 확산에 관한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이 모델에서는 화훼작물 재배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교육과 사회운동 및 정책으로 보고 있으며, 화훼작물 재배의 확산은 다시 지역사회의 어머니티 증진과 주민의 정서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화훼작물 재배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화훼작물 재배의 수용과 확산

어머니티 증진과 정서함양 차원에서의 화훼작물 재배는 상황 또는 상황의 변화에 비추어 해석해야 할 일종의 혁신사항(innovations)이다(Rogers, 1983). 화훼작물 재배의 확산이라 함은 공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혁신사항을 수용하여 실행할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지속성이



<그림 1> 화훼작물 재배의 확산에 대한 이론적 모델

증가함을 의미한다. Rogers(1983)에 의하면, 확산(diffusion)은 일종의 사회 변화로서 사회체계의 구조와 기능에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으로 정의된다(Sherry, 2003: 210). 이와 유사한 개념이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이다. 제도화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의미가 커서 사회적 요구를 잘 충족하는 혁신사항은 이것의 수용과 실천이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제도로 자리잡아 지속되는 특성을 갖는다고 본다. 개인 수준에서 수용되던 혁신사항이 확산과정을 거쳐 사회적으로 관심을 얻게 된 후 그 실천이 일상화되고 지속되면 제도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게 된다. 한편, Sherry(2000: 213)는 이와 같은 혁신에 관한 제도가 도입되어 그것이 조직적으로 추진되며 일상화되는 것을 지속성(sustainability)을 확보한 것으로 보았다.

## 2) 교육을 통한 화훼작물 재배의 확산

교육은 개인과 조직의 의사결정 참가자들에게 꽃 재배의 필요성과 기술에 대한 인지적 이해와 숙련을 통한 습득 및 체득 수준의 향상은 물론 꽃 가꾸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과 태도의 형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수단이다(OECD, 1999b). 교육을 통하여 가정이나 학교,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자와 꽃 가꾸기 관련자에게 화훼작물 재배라는 일종의 혁신사항을 받아들이도록 촉진할 수 있다(Dickerson, 2001: 6).

한편, 교육을 통하여 꽃 가꾸기라는 혁신사항의 수용을 촉진시킬 대상이 학생이 아니라 성인이라면 사회교육적 방법이 주로 활용된다. 이러한 범주의 교육 대상으로는 학생들의 부모를 비롯한 성인 가족구성원과 교사, 교육 정책 관련 의사결정자, 지역사회개발 관련 행정공무원, 시민단체 회원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① 인식, ② 설득, ③ 결정, ④ 시행, ⑤ 확정과 같은 Rogers(1983)의 기술혁신 수용 단계 모델 등이 적용될 수 있다.

## 3) 사회운동을 통한 화훼작물 재배의 확산

사회운동 차원의 접근은 시민사회로 일컬어지는 현대 사회에서 시민단체 등 민간단체(NGOs)가 새로운 사회의 행위 주체로 인식되고, 사회 변화에 대한 이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정지용·임상봉, 1998). 사회운동은 체계적으로 조직화하여 사회변화를 꾀하는 과정으로서 캠페인보다 더 지속적으로 강한 힘을 발휘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Homan, 1993: 369). 대체로 이러한 사회운동적 접근을 시도할 때에는 이해당사자나 수용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김인호, 2003). 이러한 접근은 민간단체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사회 주민이나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여 이러한 접근을 시도하기도 한다.

## 4) 정책을 통한 화훼작물 재배의 확산

정책은 혁신 확산의 공간적 광역화와 시간적 지속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책을 통하여 특정 활동에 대한 인적, 물적 자원이 뒷받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책은 다양한 사회적 요구 중에 비교적 그 강도가 강한 것의 수용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정책이 수립됨으로써 실험적으로 이곳 저곳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시도들이 안정화되고, 성공적인 곳을 벤치마킹하여 다른 곳으로의 확산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정책적인 접근은 자칫하면 창의적인 발휘를 막고 획일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수행절차나 방법이 지나치게 경직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역기능을 최소화하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 5) 화훼작물 재배의 확산을 통한 어머니티의 증진

어머니티(amenities)란 쾌적함, 유쾌함 등의 의

미를 담고 있는 말로, Webster 사전의 정의에 의하면 어떤 상황이나 기후, 대우방식 등으로 인해 즐겁고, 편안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 개념은 주거환경이나 생활환경의 쾌적성을 설명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어 왔는데, 최근들어서는 농촌의 자원과 환경의 공익적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강조되고 있다(Heimlich, 2000).

어메니티는 개념적으로 볼 때, 자연자원에서부터 역사·문화자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이 가져다 주는 유희함의 의미를 담고 있다(OECD, 1999a). 그러므로 단년생 화초류에서부터 다년생 화초 및 관상수 등으로 구성된 화훼작물은 자연자원의 일부로서 주변 환경을 구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 어메니티를 증진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OECD에서는 농작물과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 자원으로 창출된 농촌의 어메니티가 농촌개발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은 계획적인 정비와 같은 의도적인 노력을 통하여 증진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OECD, 1994, 1996, 1999a).

### 6) 화훼작물 재배의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주민의 정서함양

선행 연구에 따르면, 성별, 나이, 성격, 환경을 막론하고, '어린 시절에 가장 중요한 환경은 야외의 자연'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재영, 2001). 자연환경의 중요한 특징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점과 계속적으로 변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렇게 통제할 수 없고 변화무쌍한 자극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인지적, 정의적, 평가적 소양을 발달시킬 수 있는 무수한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이재영, 2001). 가정, 학교, 주거지역 주변 등 지역사회에 관상수 등 수목과 화초를 심음으로써 야외의 자연만큼의 효과는 아닐지라도 이처럼 자연이 주는 독특한 경험과 학습기회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도시화율이 높은 현대 사회에서는 자연과 접촉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얻기

어렵다는 점에서 인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꽃밭과 꽃길을 조성하고 관상수 등 나무를 심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손기철 외 6인(2002)은 나무, 꽃 등 식물은 공기를 정화하고, 우리 몸에 좋은 음이온과 휘발성 물질을 방출시키며 우리의 오감을 자극시켜 정신활동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고 정서를 순화시키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정신적 장애를 치료하는 기능을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연구사례들을 토대로 제시하고 있다.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는 숲이 있는 학교와 숲이 없는 학교의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교 연구하여, 학교 숲과 같이 인공적으로 조성된 자연환경이 학생들의 정서와 학습태도 등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임업연구원, 2002).

## Ⅲ. 어메니티 증진과 정서함양을 위한 화훼작물 재배의 현황과 시사점

### 1. 화훼작물 재배의 확산 현황

#### 1) 민간단체의 꽃 가꾸기 관련사업

꽃 가꾸기와 관련된 민간단체(NGO) 사업으로서 '학교 숲 운동'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환경친화적인 학교를 조성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개개 학교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가운데, 사회운동적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1999년 (사)생명의 숲 국민운동 산하 학교 숲 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학교 숲 운동'에 의하여 주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김인호, 2002a). 여기에서는 단순히 학교를 조경화하고 녹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추진과정에서의 학생과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교육을 중시하고 있다.

산림청, 유한김벌리와 연대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학교 숲 가꾸기 사업이 추진되었다. (사)생명의 숲 국민운동에 의해 추진된 '학교 숲 시범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1999년에 10개의 시범학교 사업으로 시작하여 매년 20개 내외의 학교를 추가 선정해오고 있다. 선정되는 학교를 종류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가장 많고, 그 다음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많이 선정되고 있다. 이 사업이 정서순화에 끼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2001년부터는 특수학교도 사업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사업의 필요성을 느낀 학교의 자발적인 신청으로 시작되며, 사업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생명의 숲 국민운동과 협력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사업착수단계에서 학교의 주체들(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 단체 및 주민, 동창, 지역 행정 기관)이 모여 학교 숲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숲 조성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토론하고, 이의 추진을 위한 학교 숲 조성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이 추진된다.

성공사례를 보면, 학교에 따라서는 교정에 조경수를 식재하고 숲을 조성하는 외에도 야생화 학습원, 녹작물 학습원, 유실수 학습원, 동물 및 조류 학습원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이한웅, 2003). 이와 같이 학교의 특성과 지향하는 방향에 따라 사업의 확실성을 벗어나 학교의 교정을 공원화하고, 사철 꽃이 피는 학교를 가꾸는 등(성남초등학교,

[http://www.dgseongnam.es.kr/school/school06\\_2.htm](http://www.dgseongnam.es.kr/school/school06_2.htm)) 지역사회에 다가가고 창의성을 발휘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학교의 녹화 과정과 꽃밭 조성 및 관리 활동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학습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 2) 지방자치단체의 꽃 가꾸기 사업

### (1) 서울시의 학교녹화사업과 시민녹화교실

#### ① 학교녹화사업

일명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 사업으로도 일컬어진 학교녹화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되어 1999년에 300개교에 45억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하여, 2002년까지 759개교에 총 340억 원을 지원하였다. 학교당 지원규모가 매우 크나 주로 설계비와 시공식재비에 사용되어 왔다. 사업내용은 담장개방 녹화, 방음림, 생태연못, 자연학습장 등 다양한 녹지공간 및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지만 사업초기에는 주로 학교에 수목을 식재하는 것을 주 사업내용으로 하였으며, 최근들어 차츰 다양한 특화사업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 학교는 자치구청과 교육청에서 추천한 학교를 대상으로 시에서 설치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일시에 큰 예산을 들여 많은 학교를 지원하다보니 사업추진과정에서 이

<표 2> 「(사)생명의 숲 국민운동」에 의한 학교 숲 시범학교 조성 현황

구 분	초등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1999	6	3	1		10
2000	9	4	7		20
2001	11	8	5	2	26
2002	12	2		1	15
계	38	17	13	3	71

출처: 생명의 숲 국민운동. 학교 숲 시범학교 현황. <http://school.forest.or.kr/trend/trend.html>.

주) 2001년도에 지원된 학교 중 성의여자중·고등학교와 소명여자중·고등학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각각 이중 계산됨.

해당사자들의 참여가 부족하고, 결과 위주의 사업으로 흐르는 것을 개선하는 것이 과제이다(김인호, 2002b).

② 화훼재배에 관한 사회교육

서울시에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민녹화교실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화훼관련사회교육프로그램이다([http://www.parks.seoul.kr/greenpromotion/2003\\_spring\\_07.htm](http://www.parks.seoul.kr/greenpromotion/2003_spring_07.htm)). 생활원에, 꽃 등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을 선착순으로 접수받아 교육 대상자를 선정하며, 무료로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강좌 개설기간은 4~10월이며, 수강인원은 강좌별 30~40명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남산공원과 보라매공원, 어린이대공원, 월드컵공원 등에 개설되는데, 강의내용이 서로 다르게 구성되는 점이 특징적이다. 남산공원에서는 분재 및 화훼식물가꾸기, 식물병해충 관리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보라매공원에서는 화훼원에 강좌와 원예치료 강좌가 개설되며, 어린이대공원에서는 원예식물 가꾸기와 분재강좌가, 월드컵공원에는 자연명상교실, 원예치료 강좌 등이 각각 개설된다. 이밖에도 계절별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4월에 남산공원에 개설되는 야생초화류 관찰교실(4회), 5월에 여의도공원과 보라매공원에 개설되는 봄꽃관찰교실(각각 4회) 등이 그 예다.

(2) 천안시의 한국의 꽃 가꾸기 운동

시장의 독자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화훼재배의 확산이 이루어진 예로 천안시의 「한국의 꽃 가꾸기 운동」을 들 수 있다. 1988년부터 1989년에 걸쳐 추진되었는데, 쾌적하고 정감어린 도시경관을 만들고자 할미꽃·과꽃·복숭아꽃·도라지꽃·페랭이꽃 등 우리의 전통꽃 30여종의 육묘생산과 함께 「한국의 꽃길」, 「한국의 꽃밭」, 「한국의 꽃동산」의 조성을 시도하였다(정하용, 1990). 꽃 종자를 수집하기 위하여 새마을부녀회, 4-H 회원, 초중고교 학생들의 도움을 빌었으며, 시의 관계공무원들이 수원의 원예시험장, 강원도 농촌진흥원(현 농업기술원),

황성군의 독농가 등 꽃 선진지를 방문, 견학하여 꽃의 특성과 재배기술을 습득하였다. 화단조성 예정지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시청과 동사무소 관계 공무원, 새마을지도자를 대상으로 꽃가꾸기 요령과 화단조성 등에 대한 토론과 교육을 실시한 후에 꽃 육묘 과정을 거쳐, 「한국의 꽃길」, 「한국의 꽃밭」, 「한국의 꽃동산」 조성을 추진하였다.

특히 일반 가정에도 꽃 가꾸기를 권장하였는데, 꽃씨 모으기 운동에 참여한 가정과 동사무소에서 공동육묘한 꽃묘를 시민들에게 분양하여, 상점 앞에는 화분으로 길러 진열토록 하고, 아파트에서는 가정화단·창가·옥상·울타리 등을 이용하여 가정경관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꽃」 전람회를 천안버스종합터미널 광장에서 개최하여 홍보 및 전시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우리의 전통적인 꽃에 대해 연구하고, 채종활동에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사업 추진과정에 시민조직과 연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단기간에 주목할만한 성과를 올렸으나, 사업이 제도화되지 못하고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은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3) 정부의 꽃 가꾸기 관련 사업

(1) 교육인적자원부의 녹색학교조성사업

교육인적자원부는 1999년부터 학교와 지자체 및 시민단체의 요청에 의하여 교육청을 통해 푸른학교가꾸기사업을 지원하여 왔는데, 2003년부터는 녹색학교조성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푸른학교가꾸기사업을 통하여 지원한 학교와 지원금액 현황을 살펴보면 <표 3> 과 같다. 지원액의 규모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집행된 경우가 학교당 38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교육청을 통하여 집행된 경우가 31백만원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민간단체인 (사)생명의 숲 국민운동을 통하여 지원된 금액은 12백만원으로 가장 적다.

사업대상학교는 교육청별로 구성된 학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2003년에는 총



<표 3> 푸른학교가꾸기사업 관련 예산 투자 현황(1999~2002년 7월)

단위 : 백만원

집행방법	1999~2001년 까지		2002년 계획		합 계		비 고
	학교수	금 액	학교수	금 액	학교수	금 액	
교육청	1,018	31,724	646	21,131	1,664	52,855	1개교당 : 31
생명의 숲	48	629	31	223	79	853	1개교당 : 12
지방자치단체	835	22,765	237	18,604	1,072	41,370	1개교당 : 38
합 계	1,901	55,118	914	39,958	2,815	95,078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2, p. 2.

김인호, 2002, "한국 학교 숲 운동의 현황과 과제," 학교 숲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사)생명의 숲 국민운동에서 재인용.

417개 신청학교 중 101개교가 선정되었는데, 초등학교 55개교, 중학교 17개교, 고등학교 22개교, 특수학교 7개교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별로 연간 25백만원씩 2년간 지원되며, 협력단체인 「(사)생명의 숲 학교숲위원회」의 지역별 자문교수팀으로부터 기본설계, 수목구입 및 식재 등에 대한 기술자문을 받아 사업이 추진된다.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2003년에는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하고, 2004~2008년의 재원은 국고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그 동안의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단순히 조경수만을 식재하는 데 지나치게 치중했다는 반성과 함께, 2003년부터는 푸른학교가꾸기 사업을 "녹색학교(Green School) 조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사업내용과 추진방법 등에 대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http://www.moe.go.kr). 사업내용에 나무를 심는 것 외에도 생태연못 조성, 잔디식재, 자연학습장 설치, 교재식물 재배용 텃밭 조성 등을 강화하였으며, 사업준비

단계에서부터 (사)생명의 숲 국민운동과 같은 민간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2) 행정자치부의 국토공원화사업과 전국토 무궁화심기사업

① 국토 공원화사업

공공근로자사업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에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추진하였으며,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국토를 아름답게 꾸미고, 국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도로변 소공원 조성, 생활주변 공간 녹화, 하천수변 환경 정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년간 총 4,861억원을 투자하여 14,799개소, 75,578천m<sup>2</sup>를 정비하였다. 연도별 추진현황을 보면, 2002년 종료를 목표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사업비 면에서나 사업량 면에서 2000년에 가장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다음에는 빠르게 줄어드는 형태를 띠고 있다(<표 4> 참조).

<표 4> 국토공원화사업의 연도별 추진 현황

구 분	1999	2000	2001	2002	계	
사 업 비 (억원)	1,546	1,602	1,100	613	4,861	
사 업 량	면적(천m <sup>2</sup> )	21,728	23,621	20,295	9,934	75,578
	개 소	4,550	4,848	3,391	2,010	14,799

② 전국토 무궁화심기사업

월드컵 개최를 준비하는 가운데 행정자치부에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총 442억원을 투자하여 월드컵경기장 주변, 사적·관광지, 생활주변 등의 공원, 화단 및 꽃길 1,356개소에 2,276천본의 무궁화를 식재하였다. 외국 관광객들에게 나라꽃 무궁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민들에게 나라꽃 사랑을 통하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계기로 삼는 데 사업의 목표를 두었다. 정부주도로 특정 기간에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국토 무궁화심기 사업도 국토공원화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종료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3) 농업기술원의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조성사업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2003년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사업으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농촌에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농업인의 사회적 교류 확대와 화목한 마을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도내 21개 마을에 4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마을별로 70평 이상의 소공원을 조성하고, 마을의 문화와 분위기에 어울리게 정자, 파고라, 벤치, 평상, 야외 집회 공간 등을 설치하는 것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휴식시설 주변에 경계수목의 식재와 함께 화단과 화목류 위주의 녹음을 조성하며 꽃길을 조성하고, 표지석을 설치하며, 마을 정원을 조성하는 등 특색있는 테마공원을 설치하게 된다. 또한 마을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능소화, 넝쿨장미 등 담장 넝쿨식물 올리기, 가정마다 꽃밭가꾸기, 생울타리 설치 등 농가 옥외환경 가꾸기를 마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사업들이 주로 도시에서 이루어진 반면에, 이는 비교적 자연자원이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는 농촌 마을을 아름답게 꾸미려 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는 농촌이 자연자원을 많이 갖고 있다고해서 저절로 아름답

다운 공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꽃과 나무를 심고 다듬고 가꾸며, 휴식 관련 각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2. 분석결과의 시사점

학교를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려는 시도들은 민간단체에서 사회운동으로 시작하여 학교, 교육청, 산림청, 기업과 협력관계를 구축한 가운데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도화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민간단체인 (사)생명의 숲 국민운동을 벤치마킹하여 1999~2002년까지 추진하여 오던 푸른학교 가꾸기사업을 개선하여 2003년부터 녹색학교 조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수요가 있는 일종의 혁신사행인 학교녹화를 민간단체가 학교와 관련 정부기관 및 기업의 호응을 얻어 효과적으로 조직화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원동력이었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특히 사업의 성과가 높은 학교의 사례를 보면 사업의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추진과정 전반에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킴으로써 학습효과를 높이고, 창의력을 발휘케 하여 학교 특성에 맞게 녹화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의 학교녹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인 지원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민간단체 및 교육청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시의 주도성이 강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사업추진과정에서의 학습 및 교육 효과를 강조하기보다는 성과 위주의 실적이 강조되어 학교를 꾸미는 형태의 다양성 확보와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미흡한 점은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한편, 서울시에서 개설하고 있는 시민녹화교실은 시기와 장소를 다양화하고 계절별 축제와 연계

시키는 등 현장감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화훼와 원예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재배기술을 보급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천안시의 한국의 꽃 가꾸기 운동은 시장이 꽃 가꾸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도자의 열정적인 노력과 후원으로 사업이 추진된 사례이다. 이는 꽃 가꾸기와 같은 사회적 혁신사항이 수용되어 실천되기 위해서는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자의 이해와 인식이 중요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조직적인 노력과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그렇지만 이것이 장기적인 예산, 인력, 교육 대책이 포함된 제도로 정착되지 않고서는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행정자치부의 국토 공원화사업과 전국토 무궁화심기 사업은 단기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상당한 실적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은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꽃 가꾸기 자체에 강조점을 두기보다는 실업자 대책으로서의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하여 월드컵 개최를 준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사업이 월드컵 개최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월드컵의 종료와 함께 사업도 종료되기에 이른 것이다. 예산규모는 줄이더라도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부분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해준다.

농촌진흥청 산하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그린농촌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에도 마을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수요와 요구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재정과 프로그램이 지원된다면 지역사회 주민의 호응 속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 IV. 어메니티 증진과 정서함양을 위한 화훼작물 재배의 확산 방안

이 연구에서 설정한 이론적 모델과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어메니티 증진과 정서함양을 위한 화훼작물 재배 확산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화훼원예에 관한 사회교육 및 학교교육 프로그램의 확충

교육을 통하여 화훼원예의 중요성과 재배기술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가정과 주거지 주변에 꽃 가꾸기를 확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민녹화교실과 같은 시민원예교육이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되어 많은 국민들이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과 함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시설투자 등에 대한 일정분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학교숲 가꾸기나 푸른학교 가꾸기 및 녹색학교 조성사업 등을 통하여 학교를 아름답게 가꾸기에 성공한 학교에서 학부모 등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장, 교사 등의 연수 프로그램 꽃 가꾸기 및 지역사회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 이러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생활원예와 관련하여 초등학교에 개설된 실과교육 내용을 꽃 가꾸기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생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초 및 화목류와 야생화를 포함하여 습생이나 계절 및 생육온도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것들을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2. 학교 및 지역사회 녹화사업에의 주민 참여 강화

학교 녹화사업과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사업들이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그 효과가 가정으로까지 확산되기 위해서는 사업 프로그램 추진과정에 지역사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조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업구상 및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실행 및 평가 단계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 녹화사업이 지속성을 확보하고, 그 효과가 사회저변에 확산됨으로써 사회운동적인 차원으로까지 승화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3. 정책 지원의 강화 및 세련화

국토 공원화사업의 추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시에 특정지역의 조경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실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을 중단하는 것보다는 작은 규모일지라도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업추진 과정에 지역사회 주민과 학교 등 관련기관 담당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사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투자한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와 인식을 높여 사업의 효과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정부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도를 조속히 시행하는 것도 농촌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개인이 투자하기 어려운 부분에 공익중대 차원에서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에도 사업이 획일적인 형태로 흐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를 증대시키는 가운데 우리 나라의 고유한 특성과 지역마다의 독특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

도운영의 틀을 구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4. 지역사회의 독특하고 역동적인 이미지 창출 지향

지역사회를 녹화하는 과정에 여러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키다 보면 사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반면에 의견의 조정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향해야 할 점은 지역의 독특한 이미지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러한 이미지는 지역의 독특한 지형·지세, 기후에서 찾을 수도 있고, 마을이나 시·군의 상징 나무와 꽃에서 찾을 수도 있으며, 역사적인 의미나 지역 고유의 축제와 연계시키는 데에서 찾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역의 고유한 이미지를 창출해 갈 때 이것들이 모여 국토의 다양한 아름다움과 어머니티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이는 곧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기 고장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며 정서적인 풍요로움을 안겨주어 지역사회 녹화사업이 지속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농촌은 인구가 적어 학교나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일반사업에서 후순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며, 농촌다움을 살리는 형태의 사업추진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학교나 주거지 주변과 같은 지역사회의 녹화 과정에서 교육적인 측면의 배려는 소홀한 채 단지 관리상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단년생 화초류의 재배보다 다년생 화목류를 많이 도입하는 경향이 있다. 조경수나 다년생 화목류와 같이 수명이 긴 종류를 심어 생태복원 및 환경보전 효과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년생 화초류는 성장과 개화 및 결실과정을 거치면서 생육활동에 변화가 많아 환경을 역동적으로 만들고 재배과정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정서순화는 물론 자연에 대한 이해 및 화초재배 기

술 습득에 대한 교육적인 효과도 많이 가져다 준다. 그러므로 학교나 지역사회를 녹화하는 데 단년생 화초와 다년생 화목류를 안배하고 계절별 개화시기와 화초의 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 및 화초 식재계획을 세우도록 해야 할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공익적인 측면에서의 화훼작물 재배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어메니티 증진과 지역사회 주민의 정서순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형태의 꽃 가꾸기는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하여 시장원리에 의해 생산되고 유통될 수 없으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그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할 것이다.

생활공간에 대한 화훼재배의 확산 노력은 민간단체와 학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 꽃 가꾸기의 확산을 위한 시도단계로서 안정적인 정착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산하 관련단체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 꽃 가꾸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강화를 통하여 꽃 가꾸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관련 기술을 전수하는 것에서부터, 여러 행위주체간의 협력관계 구축 및 제도적 개선 등이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는 가정과 지역사회를 매개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자녀들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학부모와 접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 등이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고자 하는 꽃 가꾸기를 가정과 주거지 주변에 확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녹화사업은 민간단체의 경험과 건의를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폭 수용한

가운데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간단체와 지자체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을 좀 더 세밀히 조율하여 여러 주체의 난립에 의한 지원의 중복성을 조정하면서 교육, 기술지원, 예산지원, 이해당사자의 참여 확대 등이 종합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장교 교사 등 관련자의 연수과정에 꽃 가꾸기 확산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성과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특정 개인의 관심과 노력에 의해서도 공익적 차원의 화훼작물 재배의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를 제도화하지 않으면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지역축제와 같이 이벤트를 정례화하고, 지역의 관광개발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꽃 가꾸기사업을 벌이는 것도 꽃 재배를 확산시키고,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편, 지역의 특성을 부각시키고, 우리의 고유문화와 전통을 살리는 등 독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꽃의 보급을 확대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지역을 상징하는 나무나 꽃, 벚꽃에 대해 경쟁력이 있으면서 우리의 전통을 살릴 수 있는 살구나무, 나라꽃으로서의 무궁화, 우리의 들녘에서 볼 수 있는 야생화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다양한 품목에 대한 수요 파악과 함께 종자와 묘목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계획과 식재 및 관리계획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필요하다.

## VI. 참고 문헌

1. 교육인적자원부, 2003년도 녹색학교 세부추진계획, Retrieved 2003. 4. 20. from <http://www.moe.go.kr>.
2. 교육인적자원부, 녹색학교 사업설명서. Retrieved 2003. 9. 17. from <http://www.moe.go.kr>.

3. 교육인적자원부, 2003년도 녹색학교 조성사업 선정대상 학교(교육부) 및 학교 숲(생명의 숲 국민운동본부 선정) 시범학교 명단. Retrieved 2003. 9. 17. from <http://www.moe.go.kr>.
4. 김성완, 1987, “야생초화류의 개발 및 화훼화에 관한 연구: 경북지방을 중심으로,” 계명연구논총, 6:363-369.
5. 김인호, 2001, “푸른학교 가꾸기 사업의 의의와 방향,” 성남시 푸른학교 가꾸기 워크숍자료집, 성남시·성남의제21 실천협의회.
6. 김인호, 2002a, “학교 숲 운동이란,” 학교 숲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사)생명의 숲 국민운동.
7. 김인호, 2002b, “한국 학교 숲 운동의 현황과 과제,” 학교 숲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사)생명의 숲 국민운동.
8. 김인호, 2003, “참여와 함께하는 학교 숲 운동: 과정 중심의 학교구성원 참여형 활성화,” 학교 숲의 날 워크숍 자료집, (사)생명의 숲 국민운동.
9. 김정길, 1986, “산야초의 원예화에 관한 연구,” 새마을연구, 4, 군산대학 새마을연구소, pp. 51-61.
10. 농림부, 2000, 열린농정 II, 농림부.
11.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2000a, 원예작물 재배현황,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12.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2000b, 1999년도 원예시험연구사업 연보,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13. 류승열, 2001, 한국특산속식물인 금강초롱꽃과 모데미풀의 화훼화에 관한 연구, 농림부.
14. 문정현, 2001, 학교조경의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대전광역시 ‘푸른교정 가꾸기’에 참여한 42개 학교를 대상으로,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박광우 외 2인, 1998, “야생화 캔재배에 의한 상품화 기술개발(1),” 산림과학논문집, 59: 8-16.
16. 박명애, 1997, 실과교과서 내용의 화훼식물 분석과 지도방안: 태안반도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 박현태·김연중, 1998, “화훼유통 및 소비실태와 정책 과제,” 농촌경제, 81:47-64.
18. 배홍규·김진수, 1996, “화훼류에 대한 부산지역 소비자의 행태 분석,” 동아대학교 동아논총, 33: 321-335.
19. 생명의 숲 국민운동. 학교 숲 시범학교 현황. Retrieved 2003. 3. 30. from <http://school.forest.or.kr/trend/trend.html>.
20. 서울시 시민녹화교실. Retrieved 2003. 5. 23. from [http://www.parks.seoul.kr/greenpromotion/2003\\_spring\\_07.htm](http://www.parks.seoul.kr/greenpromotion/2003_spring_07.htm).
21. 성남초등학교, 푸른학교 가꾸기. Retrieved 2003. 8. 20. from [http://www.dgseongnam.es.kr/school/school06\\_2.htm](http://www.dgseongnam.es.kr/school/school06_2.htm).
22. 손기철 외 6인, 2002, 원예치료: 식물, 인간, 환경, 서울: 중앙생활사.
23. 심우경, 1984, 학교의 옥외환경 개선을 위한 조경학적 연구: 광주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4. OECD, 2003, 유럽의 농촌어메니티 정책동향. Retrieved from 2003. 9. 19. [http://www.terrami.org/agroinfo/issue.html?issue\\_id=77&gubun=](http://www.terrami.org/agroinfo/issue.html?issue_id=77&gubun=).
25. 이경순 외 2인, 1998, “실내공간에 도입된 꽃과 푸르름의 역할과 활용,” 동아대학교 동아논총, 35:453-468.
26. 이영석, 1991, “화훼산업의 당면과제와 육성방안,” 농촌경제, 14(1):49-64.
27. 이인세, 2001, “대전지역 학교 숲 가꾸기 추진사례,” 학교 숲 국제초청 세미나 자료집, (사)생명의 숲 국민운동.
28. 이재영, 2001, “환경교육 장으로서의 학교 숲 운동,” 학교 숲 국제초청 세미나 자료집, (사)생명의 숲 국민운동.

29. 이정식 외 2인, 1996, “도시환경조성용 자생 화훼류 선발,” 서울시립대학교 수도권개발 연구소 연구논총, 22: 193-205.
30. 이한웅, 2003, “학교뜰을 생태학습장으로 만들기,” 학교 숲의 날 워크숍 자료집, (사)생명의 숲 국민운동.
31. 임내규, 2000,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위한 웹-기반 화훼교육 프로그램,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2. 임업연구원, 2002, 학교 숲이 학생들의 정서, 자연심리태도 및 애교심에 미치는 영향, 임업연구원.
33. 정성혜, 1998, “학교조경의 해외사례와 경향: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진보,” 환경과 조경, 127: 54-58.
34. 정지웅·임상봉, 1998, 지역사회개발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35. 정하용, 1990, “「한국의 꽃」가꾸기 실제와 발전방안,” 시장군수과정 연구논문집,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36. 조영환·박천호, 1987, “초등학교 조경에 있어서의 식물이용 체계에 관한 연구: 목포시 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국조경학회지, 15(2):1-21.
37. 지역아카데미, 2003, 농촌개발과 어메니티: 국제적 논의동향과 함의. Retrieved 2003. 9. 19. from [http://www.terrarni.org/agroinfo/issue.html?issue\\_id=17&gubun=](http://www.terrarni.org/agroinfo/issue.html?issue_id=17&gubun=).
38. 최영애, 2003, 원예치료, 서울: 학지사.
39. 최윤중, 2002, “서울시 학교녹화 추진내용: 2002년도를 중심으로,” 학교 숲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사)생명의 숲 국민운동.
40. 학교숲위원회, (사)생명의 숲 국민운동, 2000, 학교 숲 가꾸기 활성화를 위한 교사용 지침서, 학교숲위원회, (사)생명의 숲 국민운동.
41. 함평군, 2002, 군정백서, 함평군.
42. 허복구, 1994, 행복의 비밀과 원예생활, 서울: 전원문화사.
43. Hicks, A., 2003, 농부의 마음으로 경영하라, 서울: 시대의 창.
44. Dickerson, G. E., 2001, Institutionalization of an Educational Reform: Sustaining an Effective Educational Program,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Retrieved 15 August 2003 from <http://scholar.lib.vt.edu/theses/available/etd-01092002-190242/unrestricted/Chapters 1-5. pdf>.
45. Frank, F., & A. Smith., 1999, The Community Development Handbook: A Tool to Build Community Capacity, Alberta: Minister of 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
46. Frank, F., & A. Smith., 2000, The Partnership Handbook, Alberta: Minister of 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
47. Heimlich, R., 2000, “Establishing Effective Incentives in Practice: the Role of Valuation and Influence of Other Factors,” Valuing Rural Amenities: Territorial Economy, Paris: OECD, pp. 129-160.
48. Homan, M. S., 1993, Promoting Community Change: Making It Happen in the Real World, Californi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49. Kramer, M., 2000, Making It Last Foreve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ervice Learning in America, Corporation for National Service. Retrieved 2003. 3. 7. from [http://www.nationalservice.org/research/fellows\\_reports/2000/kramer.pdf](http://www.nationalservice.org/research/fellows_reports/2000/kramer.pdf).
50. Manaker, G. H., 1981, Interior Plantscape, N.J.: Prentice-Hall, Inc.
51. OECD, 1994, The Contribution of Amenities

- to Rural Development, Paris: OECD.
52. OECD, 1996, Amenities for Rural Development: Policy Examples, Paris: OECD Publication.
53. OECD, 1999a, Cultivating Rural Amenities: An Economic Development Perspective, Paris: OECD.
54. OECD, 1999b, Environmental Communication: Applying Communication Tools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Retrieved 5 April 2002 from [www1.oecd.org/dac/pdf/env\\_com/envcom-oecd-01-full.pdf](http://www1.oecd.org/dac/pdf/env_com/envcom-oecd-01-full.pdf).
55. Relf, D., 1992, "Human Issues in Horticulture," *HortTechnology*, 2(2):159-171.
56. Robinette, G. O., 1972, Plants, People and Environmental Quality, Washington D.C.: Department of the Interior National Park Service.
57. Rogers, E. M., 1983, Diffusion of Innovations, New York: The Free Press.
58. Sherry, L., 2003, "Sustainability of Innovations," *Journal of Interactive Learning Research*, 13(3):209-236. Retrieved 2 October 2003 from <http://www.rmcdenver.com/starcenter/Sherry.pdf>.
- (2003년 11월 29일 접수, 심사후 수정보완)